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

성취될 확률 1:10¹⁷

님께

오늘은 세 가지 매우 놀라운 예언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하고자 합니다.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는, 단지 8개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만으로도 그것이 단순히 사람의 지혜로 쓰였을 확률이 1조 곱하기 1조에 1000억을 곱한 것 중 단 하나, 즉 1:10¹⁷에 불과하다는 통계적 사실도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이 세 가지 예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십자가에 달린 분의 옷은 나누어지고, 속옷은 제비뽑기로 정해질 것이다.
2. 그분의 뼈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로마 군인들이 이 예언을 알지 못한 채, 정확히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3. 그분은 은 30개의 돈을 받고 배신당하실 것이다.

이 예언에는 놀랍게도 여덟 가지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① 예언: 십자가에 달리신 분의 옷과 관련된 예언

이스라엘의 왕이자 예언자였던 다윗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이런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예언의 말씀(시편 22편 18절): “내 겹옷을 서로 나누고 속옷은 제비를 뽑습니다.”
이 예언은 천 년 후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23~24절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성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군인들은 그의 옷을 가져다 네 조각으로 나눠 각각 하나씩 가졌다. 그러나 속옷은 이어붙이지 않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찢았기 때문에 군인들은 “이것을 찢지 말고 제비를 뽑아 갖기로 하자” 하고 서로 말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내 겹옷을 서로 나누고 속옷은 제비를 뽑습니다” 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런 짓을 했던 것이다”

이 장면에서는 눈여겨볼 만한 세부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옷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찢었습니다.

1. 겹옷은 나누어 가졌고,
2. 속옷은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는 네 명의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각각 한 벌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바로 속옷이었습니다. 처음엔 그것도 네 조각으로 나누려 했지만, 보니 그 옷은 위에서부터 하나로 짜인 귀한 옷이었습니다. 찢으면 그 가치를 잃게 될 걸 알았던 그들은 차라리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이 갖도록 결정했습니다. 모든 것이 천 년 전에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의 깊게 보면, 예수님의 옷은 정확히 네 벌이었고, 군인도 네 명이었습니다. 한 벌이 남았고, 그 남은 옷에 대해서도 군인들은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우리가 천 년 뒤에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알 수 있을까요? 그가 몇 벌의 옷을 입고 있을지, 그 곁에 몇 명의 경비병이 서 있을지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다윗도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결코 그것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단 하나의 가능성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② 두 번째 예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으리라.

이 예언에 대한 첫 번째 단서는 예언이 성취되기 약 1,300년 전에 모세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첫번째 단서: “유월절 고기는 집 안에서만 먹고 조금도 집 밖으로 내가서는 안 되며 뼈도 꺾어서는 안 된다”(출애굽기 12:46).

이 구절은 출애굽 바로 전 유월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고기’는 유월절 양을 뜻합니다. 이 양은 오실 구속주를 상징합니다. 예수께서 요단에서 요한에게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요한이 말한 것을 기억해 보세요.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요 1:29)

두 번째 단서: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의 뼈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다음 단서는 예언이 성취되기 약 1,000년 전, 즉 첫번째 단서가 주어진 지 약 300년 후에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다윗은 모세의 기록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모세가 말한 어린양에 관한 내용은 한 사람, 곧 의로운 한 사람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철저히 보호하시므로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으리라”(시편 34:20).

성취: “그 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고 다음날은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이였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그대로 두고 싶지 않아서 빌라도에게 그러므로 군인들이 와서 먼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두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 그러나 예수님께 와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고”(요 19:31~33). 여기서 말하는 ‘준비일’은 안식일(토요일) 전에 준비하는 날, 즉 금요일을 뜻합니다. 이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며, 오늘날 우리는 이날을 ‘성 금요일’이라 부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이 안식일 동안 계속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부탁해, 십자가에 달린 자들의 다리를 꺾어 빨리 죽음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빌라도는 그 요청을 허락했는데, 그 내용은 성경의 예언과 정반대였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그의 뼈는 꺾이지 않으리라.”

만약 당신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고, 이 예언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그 상황 속에서 과연 그 예언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로마 군인들은 뼈를 꺾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명령대로 실행에 옮겼고, 먼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한 사람의 다리를 꺾고, 이어 다른 사람의 다리도 꺾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피해 지나갔습니다. 혹시 그들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던 걸까요? 이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렵잖이나마 알고 있었던 걸까요?

병사들이 마침내 예수님께 다가가 보니, 이미 숨을 거두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리

뼈를 꺾으라는 명령을 더 이상 실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 이미 오래 전부터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약 1,000년 전, 다윗을 통해, 그리고 약 1,300년 전,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철저히게 보호하시므로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으리라”(시 34:20). 이 예언은 정말 놀라운 정도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욱 놀라운 일이 이어집니다. 병사들이 이번에는 아무런 명령도 받지 않았는데도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자의적으로 한 이 행동은, 무려 500년 전에 예언자 스가랴를 통해 이미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단서: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바라보리라”

먼저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 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출 12:46)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은 자기들이 찔려 죽인 자를 바라보고’(슥 12:10) 하였느니라.”

병사들 중 한 사람이 아무 명령도 받지 않은 채,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결과, 피와 물이 흘러 나왔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확실히 돌아가셨음을 보여줍니다. 피가 이미 분리되어 있었다는 것은 생명 활동이 끝났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잠시 우리가 지금까지 본 장면을 되새겨 봅시다.

세 명의 예언자가 각각 다른 시대에 예언한 내용이 놀랍도록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모세는 사건이 일어나기 1,300년 전에, 다윗은 1,000년 전에, 그리고 스가랴는 5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고, 서로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모두 일치된 내용을 예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단순한 확률상의 일치였을까요?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우리가 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받은 계시는 모두 동일한 출처, 바로 한 분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예언자에게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설명은 있을 수 없습니다.

③ 세 번째 예언: 그리스도께서 은 삼십 개에 팔릴 것이다.

첫 번째 단서: “심지어 내가 신뢰하고 내 빵을 먹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까지도 나를 배반하였다”(다윗의 예언, 약 1,000년 전 시편 41:9). 이후 약 500년 뒤, 예언자 스가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예언이 주어집니다. 이 내용은 스가랴서 11장 12~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서: “내가 그들에게 ‘너희가 좋게 생각하면 내 품삷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어라’ 하자 그들은 내 품삷으로 은화 30개를 주었다 여호와께서는 상당히 많은 그 돈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토기장이에게 돌아갈 그 은화 30개를 여호와와 성전에 던져 넣었다”

성취: 이 예언이 성취된 내용은 마태복음 10장 4절과 27장 1~10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마 10:4). “이른 아침 모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합의하였다 그러고서 그들은 예수님을 묶어서 끌고 가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다 그때 예수님을 팔아 넘긴 유다는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가 내린 것을 보고 뉘우쳐 은화 30개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 주며 ‘내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팔았으니 정말 큰 죄를 지었소’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소?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오’ 하고 대답하였다 유다는 그 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나가서 목매달아 자살하였다 대제사장들은 그 돈을 주워 ‘이 돈은 피 값이므로 성전 금고에 넣을 수는 없다’ 하고 의논한 후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발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그 발을 피발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해서 예언자 예레미야의 다음과 같은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의 몸값으로 정한 은화 30개를 받아 주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토기장이의 발을 사는 값으로 주었다”(마 27:1~10).

인간의 관점에서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여덟 가지의 모든 세부 사항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언이 성취된 여덟 가지 구체적인 내용:

1. 그리스도께서 배신당하실 것이다.
2. 배신자는 가까운 친구일 것이다.
3. 배신의 대가로 은 삼십 개가 지불된다.
4. 이 가격은 외국인 노예의 법적 가격과 같았다.
5. 돈은 은화(silberling)였다.
6. 돈은 주는 것이 아니라 던져진다.
7. 던져진 장소는 성전이다.
8. 이 돈은 성전에 그대로 두지 않고, 토기장이의 발을 사는 데 사용된다.

이 여덟 가지 조건은 각각 수많은 다른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하나같이 정확히 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만 예언이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예측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으로서, 수백 년 전부터 이 모든 일을, 예언자들을 통해 알려 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 우리로 하여금 성취된 예언을 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그분을 더욱 신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스토너 교수의 연구 결과

과학자 피터 스톤(Peter Stoner) 교수는 그의 저서 『과학이 말한다(Science Speaks)』에서 메시아에 대한 8가지 예언이 예수한 사람 안에서 성취된 확률을 수학적으로 계산했습니다.

스토너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수학적 확률 계산에 따르면,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8가지 예언이 역사상 어떤 한 사람에게 모두 이루어질 확률은 $1:10^{17}$ 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1 뒤에 0이 17개 붙은 숫자로, $1/100,000,000,000,000,000$ 이라는 천문학적인 확률을 의미합니다”(출처: 『하나님을 경험하라 - 성경은 과연 믿을 만한가?』, 조쉬 맥도웰, CLV 출판사, 2002, p. 250-251)

스토너 교수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 예언들은 오직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거나, 아니면 예언자들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스스로 기록한 것입니다. 만약 후자라면, 즉 예언자들이 인간적인 지혜로만 쓴 것이라면, 그 모든 예언이 한 사람 안에서 이루어질 확률은 1조 곱하기 100경분의 $1(1:10^{17})$ 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은, 단지 이 여덟 가지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확률은 단지 1조 곱하기 100경분의 $1(1:10^{17})$ 에 불과하므로, 이 예언들이 우연히 맞아떨어졌다고 보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토너 교수는 더 나아가, 총 48가지 예언이 모두 예수한 사람에게 성취될 확률을 계산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48가지 예언이 모두 어떤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확률은 $1:10^{17}$ 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증거들을 기쁜 마음으로 깊이 있게 살펴보는 당신의 관심이 참 반갑고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주 안에서 마음을 담아,

- 헬무트 하우바일

▶ 추천: 편지 1, 6, 9 www.steps-to-personal-revival.info: Letters to Andrew

▶ 문의: juheeyeon@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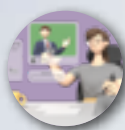
memo

성경통신학교

스마트폰 앱이 출시되었습니다.



앱스토어에 '성경통신학교'를 검색하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e-러닝 강의

강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성경 말씀을 공부해 보세요.



스마트 웹북

성경통신학교를 모바일 웹북으로 공부하여 삶의 지혜를 배우세요.



온라인 성경 공부(Zoom)

각자 있는 곳에서 정해진 시간에 줌(Zoom)으로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가 있어요

e-러닝 강의와 스마트 웹북으로 열심히 공부하시면 포인트가 쌓입니다(추천인 포인트 있음). 삼육물과 시조사물에서 사용 가능



서적 신청(유료·무료)

편하게 홈페이지와 앱에서 서적을 신청하여 구도자 분들에게도 무료 서적을 보내세요.



성경통신학교

Bible Correspondence School

1670-5235

<http://www.vop.or.kr/>

